

초식성 룸메이트

우리는 일루미나티나 마이클 잭슨이 아니다. 왜
세상은 너를 죽이거나 나를 찾고 싶어 할까?

누군가 현관문에 부적을 붙여 두고 간다. 그럼
나는 다 떼어 버린다. 그러면 그는 다시 문틈이나
소화기 밑에 끼워 두고 간다. 총알만 한 크기로
접어서. 분명 권총보다 총알이 죽음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그건 머리에 권총을 겨누는
상상을 해 본 사람만이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죄다 태워 버린다. 주방
후드가 달달달 돌아간다. 침대에 앉아 뉴스를 듣다.
회색 옷을 입은 앵커가 잘 빛은 도자기처럼 앉았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피바라는 여전히 한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녀석. 제 주제에 객기를 부리긴! 세상일이
사육사만큼 온순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요. 금방

돌아온다고 볼 수 있죠. 다음 소식은 가짜 우유를
판매한 방문 판매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거대한 짜라시가 되었을까?

더 강하게 껴안는다. 온 세상이 찾아 헤매는,
동물원에서 탈출한 카피바라를. 카피바라는 지금 내
집에 묵고 있다. 내가 뒤척이면, 고슴도치나 산토끼
털 비슷한 것이 빼곡히 박힌 몸뚱이도 뒤척인다.
우리는 함께 잠에서 깨어나고, 선인장에 꽃이
피었나 확인하다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긴긴
시간을 보낸다.

칭찬같이 좋은 말을 해 주고 싶다. 탈출한 것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말이나 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나도 자주 친절한 말을 찾아 헤매니까. 너는
사육사에게 관리를 받아온 것치곤 지저분하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어울린다. 게다가 너는 남미
출신이기도 하다. 1996 년, 남아메리카의 쿠바에서는
전설적인 재즈 그룹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결성되었다. 그들의 음악은 자주 나를 멋진

외톨이라고 일러 준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결정적으로 너는 몸집 대비 다리가 짧고, 포유류치고는 공격성이 없다. 그래서 너를 데리고 왔다. 칭찬거리를 더 찾아 줄까? 내가 물으면 너는 콧김을 뿜는다.

서울의 거대한 동물원에서 카피바라는, 웬만한 건 참아 주며 살았다. 극단적으로 덥고 추운 계절이나 울타리에 버섯처럼 달라붙는 작은 손가락들 말이다. 그러나 가끔 관리인이 달라붙는 인공 호수만큼은 참아줄 수가 없었다. 남아메리카에서 풍덩 빠지고 놀던 호수는, 카피바라에겐 게임 속의 거대한 심벌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닿기만 해도 에너지가 차 오르는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가늠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자라났을 이끼나 작은 물고기, 먼지들은 호수를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흠뻑 젖어 땅으로 기어나와 그날의 햇빛에 다시 한번 흠뻑 젖던 순간, 카피바라는 콧잔등을 부르르 떨곤 했다. 반면 동물원의 호수는 -인간 입장에서- 실온에 한 달 동안 둔 생수를 마시는 일이나 다름이 없었다.

카피바라는 사육사가 드나드는 철문 앞에 주둥이를 뻗었다. 그러곤 물때 긴 풀을 뜯어 먹던 송곳니로 자물쇠를 잘근잘근 씹었다. 오 개월 동안. 그것뿐만이 아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서 덩치를 키운 다음, 무엇이 튀어나올지 도저히 모르겠는 나무 울타리로 달려들었다. 벌러덩 누울 때마다 신음 소리가 나왔다. 튀어 나갈 차례였다.

동물원이 폐장한 어느 늦은 밤, 각진 측면 두개골이 울타리를 들이박았다. 쿵. 찌익. 작고 검은 발바닥이 텅 빈 동물원을 가로질렀다. 다리는 짧으나 몸통은 길었으므로 그 속도는 시시티브이 수십 개를 금방 훑고 지나갈 수준이었다. 이제부터는 울타리 밖에 살아간다. 그러나 그곳은 남아메리카나 자연 호수가 아니다. 카피바라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카피바라는 달렸다.

어느 추운 날,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했다. 내가 청소하는 건물은 일 층에 주차장, 이 층에 기원이 있는 작은 상가였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샌님 같았다. 누구도 굳이 건물을

더럽히지 않았다. 오전 열 시에 출근해 계단을 썰고, 화장실 바닥에 락스를 뿌려 솔질을 한 뒤 옥상에서 담배 몇 대 좀 피우면 점심시간이었다. 점심 메뉴를 고민하며 기원의 문을 반 정도 열고 "청소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면 내 몫은 끝이었다. 퇴근 후에는 기원 근처 한정식집에 갔다. 늘 앉는 자리에 앉았고, 팽이버섯 한 가닥이 들어간 계란말이를 씹고 있었다. 버섯은 주방 직원의 실수로 들어간 작은 이스터에그였다. 어떤 요리를 하다가 못 치운 걸까. 갈비찜? 버섯전골? 나는 이런 이벤트를 누군가에게 말해 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할 사람이 없었다. 은둔자의 운명이란 그런 거였다. 아빠는 나를 버렸다. 아니다. 아닌가. 내가 아빠를 버렸다. 아무튼 그렇게 되자 세상과 나는 동떨어졌다. 그렇게 되고야 말았다. 이 이상을 생각하면 서러울 것이다.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 고무장갑을 낀 손이 공기밥을 내려놓았다. 그리곤 어머, 하는 말과 함께 검지 손가락을 들어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행방불명.

형편없는 화질의 화면에서 둥글고 긴 짐승이 달리고 있었다. 그 밑으로는 흰 고딕체의 글씨가 빠르게 바뀌며 나타났다. 울타리. 부서졌고. 달리는. 도심. 카피바라. 서울. 포획을 위한. 그런 것들. 공깃밥 뚜껑을 열어 크게 한 손가락을 떠먹었다. 나도 저 짐승만큼 무식하게 질주했던 적이 있었다. 맘대로 돌아가는 나침반을 든 사람처럼, 오른쪽 왼쪽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화면 속 카피바라는 내 동료였다. 네 개의 분할 화면으로 보이는 일그러진 몸뚱아리. 다시 작은 화면으로 옮겨간 얼굴 정면의 생김새. 귀엽고 만만한 브라질식 이름. 세상은 저 녀석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길 바랐다.

골목으로 나와서는 영수증을 구겨 버렸다. 공깃밥 가격이 오백 원 올랐다. 계산할 때에야 알아챘다. 자신을 자주 형이라고 부르라던 사장님은 며칠 전, 주에 세 번만 출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었다. 투잡을 뛰어야겠다. 저녁에 일할 수 있는 건물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쪼그려 앉았다. 오른쪽에서 자꾸만 소리가 들렸다. 여러 번 주저하는 발걸음 소리. 가쁜 콧김을 후 내쉬는

소리도 들렸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며, 가까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인사했다. 뉴스에서 본 카피바라였다.

카피바라는 쪼그려 앉은 내 무릎 앞에 코를
쿵쿵거렸다. 무릎에 양손을 얹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건 카피바라 쪽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물었다.

파라과이 출신입니까? 카피바라는 다 그렇다던데.
그런 건 모르겠네요.

배고프죠? 침 삼킬 때마다 마른 행주를 삼키는 것
같고. 가죽 찹찹 마르고. 누가 쫓아오는 소리 들리고.
전부 다 예상했어요.

전부 다?

내가 포획되면 바로 죽어 버릴 것까지도요.

숨겨 줄게요. 숨어요. 우리 집으로 와서 살아요.
근데 카피바라는

풀만 뜯어 먹고 사나? 그다음 날부터 한정식집에
가지 않았다. 집에서 카피바라와 함께 식사했다.
점심 식사는 철저히 초식성 식습관에 맞추었다.
평소에 젖은 휴지에 감싼 캔맥주를 넣어 두던
냉장고 신선칸을 전부 비웠다. 그리고 셀러리, 당근,
사과 같은 것들을 채워 넣었다. 썰어서 생으로

먹거나 데쳐서 먹었다. 카피바라는 점심 한 끼를 든든히 먹고 마는 동물이었다. 밥을 먹고 나서는 주로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온순한 눈을 반 정도만 감거나, 전부 다 감았다.

나는 그 옆에서 자주 인터넷 뉴스를 찾아봤다. 카피바라의 탈출은, 독감처럼 도는 지구멸망설, 그다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카피바라는 하늘로 간 거야. 하늘로 올라가서 인간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 저 짐승은 나를 죽이려고 탈출한 거야. 못된 카피바라. 어떻게 좋은 것만 하고 사니? 또, 이틀에 한 번 경찰에 카피바라를 목격했다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카피바라의 행방을 끝내 쫓지 못한 경찰들은 짜라시를 믿고 마는 세상에 이렇게 발표했다.

우리는 좀 잘해 보려는 거였다.

나는 카피바라가 절대 세상에 잡혀 주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세상은 다시 이 모든 것에 질려서, 다른 소문을 찾아 나설 것이었다. 일 년에 몇 번 운명처럼 신문 귀퉁이를 장식하고 말 것이었다. 오래오래 살면서. 아삭한 채소를 나눠

씻으면서. 오후와 저녁을 나누어 청소할 건물에 찾아가기 시작한 나와 함께. 밤마다는 기름진 몸뚱이를 껴안고. 밖에서 들은 좋은 말 나쁜 말을 일러바치면서. 조금 울고 내내 웃다가 잠들 것이다.

줄리다 이제 자야겠어.

창문을 닫으면 형체가 사라진다.

어제는 친형에게 전화가 왔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자야 했다. 카피바라는 요즘 이를 갈기 시작했다. 수면제에 박힌 알파벳 Z. 좀비나 지그재그를 떠올렸다가 금방 잊었다. 오늘 아침은 약기운으로 어지러웠고 점심과 저녁은 카피바라에게 투덜거렸다. 새벽 세 시가 넘은 지금까지도. 나의 초식성 룸메이트야, 이럴 때마다 막 춤을 추고 싶어. 소리 지르고 싶기도. 나라는 자식이 세상에 멀쩡히 살아 있다고 알려 주고 싶어. 우리 형은 가진 게 많다? 돈도 집도 자식도 엄마 아빠도 다 형이 가지고 있어. 카피바라가 뒷발로

목을 굽으며 답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같이 춤추자.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있다. 음악 소리를 들으며 발 박자를 맞출 수 있다. 우리가 쿵쿵 찍는 발소리는 부적이 숨은 현관문을 열고 나갈 것이다. 울타리 보수가 끝난 동물원, 남아메리카까지 닿을 것이다. 맞아? 맞지. 그리고 어딘가 반드시 살아 있을 엄마 아빠에게도 닿을 것이다. 다섯 살 난 아들을 화장실에 가둬 버리던 아빠에게 이름을 불러본 적은 없다. 지석아. 그렇게 불렀대도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거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언어 장애가 생겼다. 언어 장애는 내 인생을 망쳤다. 타인과 대화하면 단어가 무작위로 튀어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청소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청소 끝났습니다. 이따위 말만 하는 청소부로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형은 엄마의 납골당 유지비 문제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내가 아주 어릴 때 죽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형은 적당한 핑계를 붙여 분풀이 용도로 전화를 건다. 일 년에 한 번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잘 것 없이 느껴질 때마다. 이번에는 뭐

때문이였을까. 하나뿐인 딸이 시험을 망쳤을까.
사랑하는 아내가 형을 씹어 대기라도 했을까.

나랑 계속 춤출 수 있어?

쿵. 쿵. 오른쪽으로. 형한테 대답했다. 누. 누가.
야간수당. 우회전. 감. 감사합니다. 형. 맹목.
맹목적으로. 형. 형은 목이 쉴 때까지 웃다가 전화를
끊었다. 이제 춤에 집중한다. 더 생각하면 나는
서러울 것이다. 카피바라는 발 두 개로 서서
자신만의 박자를 만든다. 쿠바 음악의 기타 줄
소리만큼 난잡한 춤동작. 나는 그 박자에 맞추다가,
두 박자로 쪼개기도 하고, 멈추어 서서 쉬어가기도
한다. 이 박자는 우리더러 멋진 외톨이라고 말해
준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춤이 멈춘 다음엔 아침이 올 것이다.

이 당연한 사실이 나를 미쳐버리게 한다. 우리는
얼마나 발을 굴렀을까. 너는 지금 다리가 아플
것이다. 카피바라는 두 발로 걷는 동물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손을 놓지 않는다. 너도 지금 아빠를
생각할까? 내 목소리가 궁금하지 않아? 카피바라가

답한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알고 싶지 않아. 세상 카피바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훗날 너를 데리고 파라과이에 갈 것이다. 돈을 엄청 많이 모은 다음에, 문제의 자연 호수에 풍덩 빠질 것이다. 발버둥은 치지 않을 것이다. 지긋지긋하니까. 땅바닥까지. 에너지가 머리털 끝으로 차오를 때까지. 가라앉을 것이다. 우리 서로 품에 안고.